

사례10. 방광소세포암에 대한 임상병리학 연구 결과

개나리 병원 홍길동 팀 3명은 진달래 병원 임격정 팀 4명과 함께 비교적 희귀질환인 방광소세포암에 대한 임상병리학 연구결과를 2004년 국내학술지에 국문으로 게재하였다. 연구기간은 1995년 1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총 8년으로, 대상 환자의 수는 15명이었다. 진달래 병원 임격정은 '방광소세포암에 대한 임상병리학적 연구: 단일기관'이라는 제목으로 2007년 국제학술지에 영문으로 발표하였다. 두 번째 논문 저자는 진달래 병원 의사로만 구성되었고 첫 논문에 포함된 4명 외 1명이 추가되었다. 연구기간은 1995년 1월부터 2005년 12월로 총 11년이며 대상 환자 수는 17명으로 2명 증가하였고 모두 개나리 병원 환자였다.

구성 요소별 판정

항목	내용	판정
저자와 소속	비교적 희귀한 질환으로 개나리 병원 증례로 논문이 작성되었으며, 개나리 병원 의사 3명과 진달래 병원 의사 4명이 참여하였음. 진달래 병원 의사들이 참여하게 된 사유가 불분명함.	두 번째 논문에는 진달래 병원 의사 5명만 참여
가설	같은 내용의 논문으로 동일	동일
대상	연구기간이 3년 연장되었으나 환자 수는 2명만 증가	대부분이 중복
연구방법	동일	동일
결과	동일	동일
새 정보	없음	없음

추가 사항

항목	내용
발표 학술지 관련	국내학술지에 국문으로 2004년 게재, 해외학술지에 영문으로 2007년 게재하면서 국내학술지 인용 없음
표	두 논문에서 표 각 1개로 대상 숫자만큼 차이
그림	그림 각 1 개로 대상 숫자만큼 차이 하지만 전체적인 내용은 거의 동일
참고문헌	첫 논문 15개 뒷 논문 16개로 15개가 일치
연구비 기술	모두 기술 없음

해설

항목	내용
중복출판	일부 저자가 바뀌었지만 공저자를 두 논문이 공유하며, 가설, 연구방법, 결과가 동일, 연구기간이 다소 늘었고 연구대상이 조금 많아졌지만 새 정보가 없음 •유형: 다른 언어로 일부 수정한 복제
다른 윤리문제	•저자됨: 개나리 병원 증례를 발표한 논문이며 두 번째 논문에서는 진달래 병원 의사만이 공저자로 참여, 3년 뒤 진달래 병원 의사들만이 개나리 병원 증례를 가지고 같은 내용의 논문을 작성하여 국제학술지에 발표하여 개나리 병원의 공저자를 제외시킴으로 인하여 유령저자 의심